

청년의 사회적 지지¹⁾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among
Youth in Korea

주유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전국 만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세 축으로 나누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Zimet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주관적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태 분석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낮은 취업

률, 실업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고용 악화, 경제적 어려움, 기회의 상실 등 여러 영역에서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

1) 이 글은 정세정 외(발간 예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저자가 작성한 ‘제7장 청년의 사회적 지지’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대에서부터 점차 더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N포 세대로 불리기조차 한다.

각종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등을 통해 받는 지지를 뜻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주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in, Dean, & Ensel, 1986).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 등을 포함하며,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도록 돕는 등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s, 1985).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Thoits (1985)는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지지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 부재 및 결핍의 극단적인 케이스인 고독사를 보면, 2013년 서울시 고독사 의심 사례 2343건 중 20대와 30대는 328명, 전체의 14%로 차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송인주, 2016). 독거노인에게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청년층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꼭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의 혼밥, 혼술 등 나홀로족 문화의

이면에는 고독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전국 만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논하는 대상,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고,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도 분석하였다.

2.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이 가장 먼저 찾은 대상

청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영역은 다양하다. 이를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관련 문제, 금전적 문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로 나누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부터 관련 전문가까지 여러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살펴보았다.

감정적·심리적 문제,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에서는 친구, 학교 선후배에게 가장 먼저

2) 2018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대 청년 26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고독함을 느낀다고 답변 바 있다(이정우, 2018).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문제, 금전 문제,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영역을 막론하고 친척이나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또한 6.21%(가족 구성원 문제)에서 9.76%(안전 문제)까지 나타났다. 이를 인구학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립한 청년 1인 가구, 현재 실업 상태인 청년층이 이러한 사회적 고립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1년 동안 아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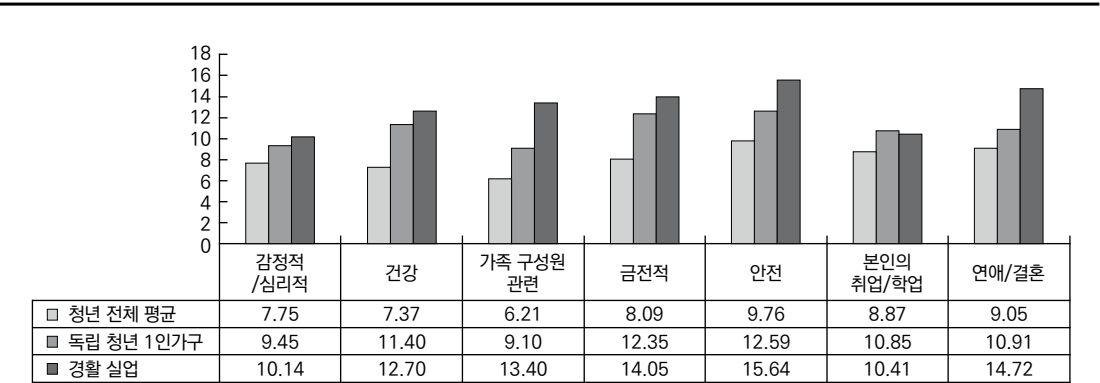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해당 없음
감정적·심리적	28.29	0.76	45.96	2.87	0.46	1.01	7.75	12.90
건강	55.54	0.40	10.68	1.54	0.22	4.55	7.37	19.69
가족 구성원 관련	56.30	1.17	15.95	1.17	0.26	0.25	6.21	18.68
금전적	62.15	0.62	10.69	1.42	0.20	0.32	8.09	16.51
안전	38.99	0.38	16.03	4.46	0.33	0.93	9.76	29.12
본인의 취업·학업	30.37	0.60	37.90	4.31	0.57	0.97	8.87	16.41
연애·결혼	14.52	0.54	52.61	1.90	0.26	0.02	9.05	21.13

주: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그림 1. 주요 변인에 따른 사회적 고립 상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단위: %)



주: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그림 1). 이는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들 집단이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탐색이 필요하다.

3.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 받는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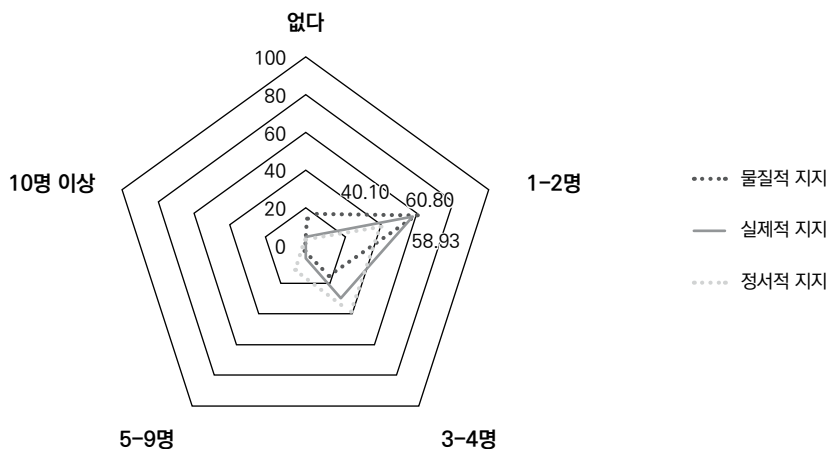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첫째,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둘째,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셋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각각 몇 명인지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으로 나누어 대략

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를 가늠해 보았다. 이와 같은 항목은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를 대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실제적, 정서적 지지의 세 영역은 사회적 지지의 주요 축 중 하나로(Cohen & Wills, 1985),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사회통합조사 등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문항이다.

[그림 2]는 ‘받는 사회적 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첫째,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그림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 받는 사회적 지지

(단위: %)



주: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 비율이 60.80%로 가장 높았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응답도 18.66%로 적지 않았다. 이는 2018년 한국사회통합조사의 응답 분포와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통합조사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19세 이상 성인을 모두 조사하였는데,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이 57.59%, 없다는 응답이 19.69%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결과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금전적 문제의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청년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둘째,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실제적 지지) 또한 1~2명이라는 응답 비율이 58.93%로 가장 높았다. 2018년 한국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은 64.67%였다. 이를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와 엄밀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청년의 경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3~4명이라는 응답이 40.42%로, 1~2명이라는 응답(40.10%)보다 약간이지만 높게 나타났다. ‘아무도 없다’는 비율은 5.79%로 위의 두 영역에 비해 낮았다. 한국사회통합조사에서 청년을 제외한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 보면, 1~2명이라는 비율이 52.73%, 3~4명이라는 비율이 32.59%, 아무도 없다는 비

율은 7.18%였다. 즉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의 청년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예 없다’는 고립 집단을 살펴보면, 물질적 지지 영역에서는 18.66%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적 지지 영역에서는 6.78%, 정서적 지지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5.79%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가장 많으며, 물질적 지지에 대한 자원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비율이 22.98%로 평균(18.66%)보다 높게 나왔다.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실제적 지지)이 없다는 비율 또한 9.91%로 평균(6.78%)보다 높았으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정서적 지지)이 없다는 응답도 7.85%로 평균(5.79%)보다 높았다. 이는 위의 여러 영역의 문제 발생 시 대처 경로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듯,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본인이 가구주인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 결여, 양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결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4.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 주는 사회적 지지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사회적

지지 또한 사람들에게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 존중감 등 여러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경험은 이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 제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물질적(돈을 빌려주는 행위), 실제적(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³⁾),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눔)로 나누어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첫째, 목돈을 빌려준 경험(물질적 지지)은 대부분의 사람(87.42%)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1년에 한 번 경험했다는 비율이 6.64%로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집안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주었다는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전혀 없다(36.65%)’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 지지에 비하

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1달에 한 번’ 도와준 경험을 했다는 비율도 1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질적 지지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를 제공한 경험도 다른 지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달에 한 번’이라는 응답이 27.44%로 가장 높았다. ‘1년에 두세 번 이상’이라는 응답도 21.42%로, 정서적 지지 제공 경험은 다른 지지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주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목돈을 빌려준 경험과 같은 물질적 지지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으며, 장보기를 도와준 경험과 같은 실제적 지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

표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 주는 사회적 지지

(단위: %)

구분	1주일에 두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1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상	1년에 한 번	전혀 없음
목돈을 빌려준 경험	0.35	0.48	2.10	3.00	6.64	87.42
장보기를 도와준 경험	11.97	15.04	18.15	12.65	5.54	36.65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	5.12	13.74	27.44	21.42	7.84	24.44

주: 표본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3) 구체적인 문항은 받는 사회적 지지인 경우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회적 지지인 경우 ‘집안 일이나 장보기를 도와줌’으로 약간 다르지만 이는 모두 실제적 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험과 같은 정서적 지지 순으로 높아졌다.

5. 청년의 주관적 사회적 지지 수준

청년 스스로 자신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Zimet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척도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12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계산은 전체 혹은 가족, 친구, 기타 의미 있는 주변인의 세 하위

영역으로 영역 내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도 전체, 세 하위 영역의 값을 모두 제시하였다.

전체 사회적 지지, 세 하위 영역(가족, 친구, 중요 주변인)의 척도값을 보면, 전체 평균값은 5.57(표준편차=.02; 범위 1-7)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를 지지의 원천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지지가 5.63(표준편차=.02)으로 가장 높았고, 의미 있는 주변인이 5.58(표준편차=.02), 친구가 5.49(표준편차=.0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은 청년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청년들은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 받는 지지, 친구에게 받는 지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족에게 받는 지지가 가장 높은 데

표 3. 청년의 주관적 사회적 지지 척도(MSPSS)

구분	문항
의미 있는 주변인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의미 있는 주변인	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가족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가족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의미 있는 주변인	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 줄 사람이 있다.
친구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가족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친구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의미 있는 주변인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
가족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친구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자료: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에서 재인용.

반해, 청년 독립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에게 받는 지지(5.28)가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 받는 지지(5.28)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를 볼 때, 혈연관계, 전통적 가족을 벗어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 또한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 사회의 가족 중심적 지지 원천에서 벗어나, 전형적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받는 지지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지각된 사회 지지 척도를 지지 수준별로 낮은 사회적 지지(1~3점), 보통의 사회적 지지(3~5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5~7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73.46%에 달하는 응답자가 본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은 사회적 지지’라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0.80%에 불과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으며 1인 가구를 구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0.8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75%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인 73.46%보다 다소 낮은 60.77%에 불과하였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였으며 1인 가구인 청년들은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지표에서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지지 수준 못지않게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다면, 사회적 지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당사자 스스로 체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나가며

이 글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지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들이 각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하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문제, 금전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논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감정적·심리적 문제,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는 친구, 학교 선후배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척과 같은 전통적 확대가족은 더 이상 오늘날 청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제로 청년들은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 있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 활용이 낮은 원인을 비용의 문제, 정보 미비 등과 같은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 관련 서비스 및 정책의 부재로 볼 것인지 혹은 이들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볼 것인지 향후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에게 제공한 경험의 빈도수를 통해 ‘받는’ 측면과 ‘주는’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들 영역을 물질적·실제적·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년은 받고 주는 모든 측면에서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받고 주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이를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통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보면, 물질적 지지에서는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실질적 지지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수준, 정서적 지지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심한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적 문제를 겪고 있다.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의 우울감 경험률은 11.2%였으나, 19~29세 청년은 이 비율은 13.5%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 2020). 이러한 점을 볼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서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추후 분석을 통해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울 정도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청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지지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주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러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가족뿐 아니라, 친구를 비롯한 의미 있는 주변인에게 받는 지지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전통적 가족을 벗어나 맺게 되는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쌓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또한 일관되게 관찰된다. 또한 부모에게서 독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 결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의 독립, 학교 졸업 및 취업 등 청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삶의 과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교차할 경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Wang, Mann, Lloyd-Evans, Ma, & Johnson, 2018). 따라서 이들 1인 가구의 다른 인구학적 변인과의 교차성에 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거주 지역,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 구체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혈연

중심의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친구나 선후배 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혈연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모임, 연대 모임 등과 같이 청년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운석,...김술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보건복지부.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 서울: 나눔의 집.
- 송인주.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이정우. (2018. 7. 14.). '외로운 청년'...20대 10명 중 6명 '현재 고독하다'고 느껴.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6980>에서 2020. 5. 30. 인출.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송아영. (발간 예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 Lin, N., Dean, A., & Ensel, W. M.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FL: Academic Press.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Sarason I.G., Sarason B.R. (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Dordrecht: Springer.
- Wang, J., Mann, F., Lloyd-Evans, B., Ma, R., & Johnson, S. (2018). Associations between lonelin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outcomes of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iatry*, 18(1), 156. <https://doi.org/10.1186/s12888-018-1736-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